

## 중등교사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sup>†</sup>

최은영<sup>1,2</sup> · 이경열<sup>1,3\*</sup>

<sup>1</sup>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sup>2</sup>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

<sup>3</sup>공주대학교 건강산업연구센터

## Images towar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erceived by secondary school teachers<sup>†</sup>

Eun-Young Choi<sup>1,2</sup> · Kyoung-Youl Lee<sup>1,3\*</sup>

<sup>1</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sup>2</sup>Emergency Medical Center, SNUH Operated Sejong City Medical Clinic

<sup>3</sup>Research Center for Health Industry, Kong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investigate the images toward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EMT) perceived by secondary school teachers.

**Methods** :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30 to 31, 2012. The subjects were 337 secondary school teachers. SPSS Statistics 18.0 was used for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Results** : Those who contacted with EMT consisted of 57.6% which was higher than those who had not(42.4%). Before contact, the gender and teaching subjec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f  $p=.027$  and  $p=.002$ , respectively. The average on the image towards EMT showed a positive points of  $5.68(\pm 0.73)$  out of 7 and the most positive image was 'practical-theoretical' of  $6.33(\pm 1.12)$ . Factor analysis of EMT image was analyzed based on 3 factors including sincerity( $5.89 \pm 0.89$ ), professionalism( $6.02 \pm 0.89$ ) and familiarity( $4.51 \pm 1.42$ )( $p < .000$ ). The degree of familiar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p=.005$ ),

투고일: 2014년 2월 21일 심사완료일: 2014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4년 4월 21일

\*Corresponding Author: Kyoung-Youl Le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314-701, Republic of Korea

Tel: +82-41-850-0335 Fax: +82-41-850-0331 E-mail: leeky@kongju.ac.kr

<sup>†</sup>이 논문은 2013년 2월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응급구조학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요약한 것임.

majoring(teaching subjects)( $p=.049$ ) and prior contact( $p=.020$ ).

**Conclusion** : In conclusion, previous contact and recognition towards EMT could make good image making in secondary school teachers by getting well-organized promotions and professional services. This contact will make a good future counseling to the students who want to be EMTs.

**Key Words** :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Factor analysis, Images, Secondary school teache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질병이나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담·구조·이송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및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를 제공한다[1].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산업이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각종사고와 대량재해,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오염으로 인한 각종질병들로 급성질환의 갑작스런 발병과 만성적 요인의 응급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더불어 응급의료의 가장 초기 반응자인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79년 야간구급환자신고센터의 개설로부터 응급의료기 시작되어, 이후 1992년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응급구조사 수습기준(안)이 마련되었고, 1994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본 법률은 1995년 1월 1일에 시

행되면서 응급구조사가 양성되기 시작하였고, 1급 응급구조사의 양성을 위해 전국 11개의 대학에 응급구조과가 개설되었다. 응급구조(학)과는 병원 전 현장과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1급 응급구조사를 교육하는 학과로서,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41개의 3년 및 4년제 학과가 있다. 또한 2급 응급구조사는 일부 대학과 소방관련 교육기관에서 양성한다.

대학 등을 통한 양성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응급구조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까지 응급구조사는 1급이 11,687명, 2급은 9,846명으로 총 21,533명이 배출되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취업현황은 의료기관에 31.1%(3,309명), 소방서 119구급대에 28.2%(3,001명)의 순이고, 환자 이송업체와 군기관, 교육기관과 국가기관, 기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2].

이렇게 응급구조사의 배출이 점점 늘어나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고 제고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응급구조사의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와 업무 인식조사[3], 병원 내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하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4],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5]와 같이, 유사한 직업군의 의료인이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진 응급구조사의 인식 및 이미지에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 중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치관의 확립 및 안내자의 역할로 생활 및 진로지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학생들은 교사를 통한 만족스러운 진로상담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같은 내적인 선택요인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며,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의 성숙도가 높게 나타난다[6].

중등교사가 응급구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학선택과 학과 및 전공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할 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입학 후 전공에 대한 적응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여, 진로지도 시 응급구조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제고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사에 대한 경험과 이미지를 파악하여, 중등학생의 진로지도 시에 긍정적인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응급구조사를 접한 경험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접한 경험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한다.

- 5) 이미지의 요인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경험에 따른 이미지 요인의 차이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사에 대한 경험과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K대학에서 실시된 「2012년 하계 1급 및 2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여한 중등교사 중 360명에게 동의를 구하고 참여를 허락한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337명의 설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조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7월 30일부터 31일로 2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과정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중등교사에게 동의를 얻은 뒤, 직접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 10문항과 응급구조사를 접한 경험 2문항, 이미지 파악을 위한 21쌍 형용사로 구성된 1문항 및 진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12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여한 교사들 중 무작위로 30명을 선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예비조사로 부적절한 항목을 수정보완 하였고, 개방

형 질문 및 면담을 시행하여 적합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1급 정교사의 중등교사 2인과 응급구조학과 교수 2인을 통해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문구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 2) 이미지 도구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는 어의미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를 사용하였다. 어의미분척도는 양극성의 형용사가 한 쌍으로 구성된 형용사 쌍들로 Osgood 등[7]이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어떤 사상에 관한 개념의 심리적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대조적 형용사가 한 쌍이 되고, 이를 양 극단으로 나누어 이 사이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Son과 Kim[8] 및 Kang과 Choi[9]의 연구에서 활용한 16쌍의 형용사를 참고로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5쌍의 형용사를 추가하여 총 21쌍으로 구성하였다.

21쌍의 형용사는 7점의 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0$ 이고, 공통적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요인분석에 의해 성실성(Cronbach's  $\alpha = .883$ ), 전문성(Cronbach's  $\alpha = .764$ ), 친숙성(Cronbach's  $\alpha = .713$ )의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응급구조사를 접한 경험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접한 경험은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요인 회전 Varimax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별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분석하였고,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idak으로 사후검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응급구조사를 접한 경험에 따른 이미지 요인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Tukey test로 사후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여자는 56.7%(191명)로 남자 43.3%(146명)보다 많았고, 연령은 29세 이하가 43.6%(147명)로 가장 많았다. 중등구분으로는 59.1%(199명)가 중학교, 40.9%(138명)가 고등학교 소속의 교사였으며, 이 중 교직경력이 4년 이상인 교사는 44.2%(149명)였다. 담당과목으로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37)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146 (43.3)
	Female	191 (56.7)
Age(years)	≤29	147 (43.6)
	30~34	136 (40.4)
	35~39	30 ( 8.9)
	40≤	24 ( 7.1)
Belonging to the school	Middle school	199 (59.1)
	High school	138 (40.9)
Teacher career	Less than 4 years	188 (55.8)
	More than 4 years	149 (44.2)
Teaching subjects	Major subject	182 (54.0)
	Arts and physical subject	101 (30.0)
	Others	54 (16.0)

Table 2. Contact experience with EMT<sup>†</sup> (N=337)

Category		n (%)	
Prior contact experience	Yes	194 (57.6)	
	No	143 (42.4)	
Yes (n=194)	Indirect	151 (77.8)	
	Direct	41 (28.7)	
Indirect* (n=151)	Visual media(TV, internet, image, etc.)	120 (79.5)	
	Publication(books, magazine, etc.)	27 (17.9)	
	Lecture, education	27 (17.9)	
	Collecting information for career counseling	25 (16.6)	
	Hearing from people around subjects	18 (11.9)	
	Others	3 (2.0)	
	Direct* (n=41)	Experience of being helped	20 (48.8)
		EMT <sup>†</sup> acquaintances	19 (46.3)
		Others	5 (12.2)

\*Multiple response  
(No answer is handled as missing data)

<sup>†</sup>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일반교과가 54.0%(182명), 예·체능계열이 30.0%(101명), 기타과목이 16.0%(54명)의 순을 보였고, 일반교과에는 어문계열, 자연·과학계열, 사회계열이 속해 있으며, 예·체능계열에는 예능계열과 체육계열, 기타과목은 보건계열과 실업계열이 속

해 있다.

## 2. 응급구조사를 접한 경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응급구조사를 접한 경험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중등교사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해 접해 본 경험의 유무로는 ‘경험 있다’의 경우가 57.6%(194명), ‘경험 없다’의 경우가 42.4%(143명)로 나타났다.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에서 보거나 들은 간접적인 경험만 있는 경우가 77.8%(151명)이었으며, 응급구조사를 만났거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와 같이 응급구조사를 직접 접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8.7%(41명)로 나타났다.

간접경험의 대상 중 79.5%(120명)가 ‘TV, 인터넷,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경험하였고, ‘책, 신문, 잡지 등 서적을 통해’와 ‘강연이나 교육 등을 통해’는 모두 17.9%(27명)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졸업생의 진학’이 있었다. 직접 경험한 대상자들은 ‘응급구조사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48.8%(20명)이었고, 46.3%(19명)는 ‘지인 중에 응급구조사가 있다’라고 답했다. 기타로는 ‘병원에서 실습생을 봤다’,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보건교사를 통해’, ‘재학시절 응급구조 모의활동을 하는 것을 봤다’ 등이 있었다.

Table 3. The difference of contact experience with EMT<sup>†</sup>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 (N=337)

Characteristics	Category	Prior contact experience		$\chi^2$	p
		Yes (n=194)	No (n=143)		
		n (%)	n (%)		
Gender	Male	94 (64.4)	52 (35.6)	4.900	.027
	Female	100 (52.4)	91 (47.6)		
Teaching subjects	Major subject	91 (50.0)	91 (50.0)	12.050	.002
	Arts and physical subject	72 (71.3)	29 (28.7)		
	Others	31 (57.4)	23 (42.6)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경험 유무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경험 유무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해 남자의 64.4%(94명), 여자의 52.4%(100명)는 접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우는 남자의 35.6%(52명), 여자의 47.6%(91명)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27$ ). 담당과목에 따른 경험 유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02$ ), 일반교과 과목 교사의 50.0%(91명), 예·체능 과목 교사의 71.3%(72명), 기타 과목 교사의 57.4%(31명)가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 4. 대상자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 1)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척도

대상자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척도는 <Table 4>와 같다.

중등교사가 생각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총 평균은 5.68점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의 형용사 쌍은 6.33( $\pm 1.12$ )점의 ‘실제적인-이론적인’으로 ‘실제적인’의 긍정적 형용사에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다음으로 긍정적 이미지의 형용사는 ‘가치 있는’과 ‘도움이 되는’으로, 각각 6.31( $\pm 1.39$ )점과 6.28( $\pm 1.18$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항목을 보면 ‘편안한-긴장되는’이 4.08( $\pm 2.12$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낮익은-낯선’이 4.21( $\pm 1.83$ )점, ‘안전한-위험한’은 4.31( $\pm 2.14$ ) 점으

Table 4. Image to EMT\* as measured by semantic differential scale (N=337)

Image	Total Mean $\pm$ SD	Prior contact experience	
		Yes (n=194) Mean $\pm$ SD	No (n=143) Mean $\pm$ SD
Practical-theoretical	6.33 $\pm$ 1.12	6.33 $\pm$ 1.16	6.34 $\pm$ 1.07
Valuable-worthless	6.31 $\pm$ 1.39	6.34 $\pm$ 1.40	6.27 $\pm$ 1.38
Helpful-unhelpful	6.28 $\pm$ 1.18	6.36 $\pm$ 1.09	6.19 $\pm$ 1.29
Professional-unprofessional	6.28 $\pm$ 0.97	6.36 $\pm$ 0.87	6.17 $\pm$ 1.09
Correct-inaccurate	5.98 $\pm$ 0.99	5.95 $\pm$ 1.01	6.01 $\pm$ 0.96
Receptive-refusing	5.98 $\pm$ 1.14	6.05 $\pm$ 1.09	5.89 $\pm$ 1.19
Conative-passive	5.97 $\pm$ 1.45	6.04 $\pm$ 1.37	5.89 $\pm$ 1.55
Reliable-unreliable	5.97 $\pm$ 1.10	5.98 $\pm$ 1.15	5.96 $\pm$ 1.02
Dedicated-selfish	5.97 $\pm$ 1.16	5.99 $\pm$ 1.12	5.93 $\pm$ 1.22
Comprehensible-incomprehensible	5.91 $\pm$ 1.30	5.99 $\pm$ 1.21	5.80 $\pm$ 1.40
Desirable-undesirable	5.90 $\pm$ 1.14	5.92 $\pm$ 1.13	5.87 $\pm$ 1.16
Honest-dishonest	5.85 $\pm$ 1.31	5.85 $\pm$ 1.32	5.87 $\pm$ 1.31
Strong-weak	5.83 $\pm$ 1.14	5.88 $\pm$ 1.07	5.76 $\pm$ 1.22
Skillful-unskillful	5.82 $\pm$ 1.43	5.80 $\pm$ 1.48	5.85 $\pm$ 1.38
Audacious-timid	5.82 $\pm$ 1.18	5.92 $\pm$ 1.14	5.68 $\pm$ 1.21
Deep-shallow	5.71 $\pm$ 1.18	5.76 $\pm$ 1.13	5.63 $\pm$ 1.24
Warm-cold	5.43 $\pm$ 1.63	5.50 $\pm$ 1.58	5.34 $\pm$ 1.68
Equal-authoritative	5.34 $\pm$ 1.47	5.39 $\pm$ 1.50	5.27 $\pm$ 1.43
Safe-dangerous	4.31 $\pm$ 2.14	4.38 $\pm$ 2.18	4.21 $\pm$ 2.10
Familiar-unfamiliar	4.21 $\pm$ 1.83	4.54 $\pm$ 1.74	3.78 $\pm$ 1.87
Comfortable-tense	4.08 $\pm$ 2.12	4.24 $\pm$ 2.09	3.87 $\pm$ 2.14
Total	5.68 $\pm$ 0.73	5.74 $\pm$ 0.73	5.60 $\pm$ 0.73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로 나타났다.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이미지 총 평균은 5.74(±0.73)점으로 ‘전문적인-상식적인’과 ‘도움이 되는-도움이 안 되는’의 이미지 항목이 각각 6.36(±0.87)점과 6.36(±1.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편안한-긴장되는’의 이미지 항목은 4.24(±2.0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이미지 총 점수는 5.60(±0.73)점이었다. 이들은 ‘실제적인-이론적인’에서 6.34(±1.0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낮익은-낯선’의 이미지 항목이 3.78(±1.8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2)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 요인구조**

대상자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요인분석하여 분류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21쌍 형용사의 어의미분석도를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의 요인분석을 통해서 요인부하의 절대값이 0.5이하로 나타난 ‘이해할 수 있는-이해할 수 없는’, ‘호감가는-호감이 안가는’, ‘실제적인-이론적인’, ‘대범한-소심한’, ‘정확한-부정확한’의 형용사 5쌍이 제외되었고, 나머지 16쌍 형용사의 이미지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7$ 이었다.

각 유형별 요인수효 결정을 위해 고유치, 분산비, 누적 분산비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3개의 이미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분류결과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는 첫 번째 요인으로 ‘성실성’, 두 번째 요인은 ‘전문성’, 세 번째 요인은 ‘친숙성’으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으로 성실성 요인은 ‘헌신적인-이기적인’, ‘도움이 되는-도움이 안되는’, ‘정직한-정직하지 못한’, ‘동등한-권위적인’, ‘노련한-미숙한’, ‘신뢰할 만한-신뢰할 수 없는’, ‘수용적인-거

Table 5. Factor matrix of the image to EMT\* (N=337)

Image	Factor 1	Factor 2	Factor 3
	Sincerity	Professionalism	Familiarity
Dedicated-selfish	.791		
Helpful-unhelpful	.775		
Honest-dishonest	.747		
Equal-authoritative	.642		
Skillful-unskillful	.630		
Reliable-unreliable	.539		
Receptive-refusing	.504		
Strong-weak		.784	
Deep-shallow		.758	
Conative-passive		.669	
Professional-common sense		.641	
Valuable-worthless		.617	
Comfortable-tense			.830
Familiar-unfamiliar			.772
Warm-cold			.659
Safe-dangerous			.570
Eigen value	3.4	2.9	2.5
Percent of the total variance explained (%)	21.2	18.1	15.3
Cumulative percent (%)	21.2	39.4	54.7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부적인'의 7쌍의 형용사 이미지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모든 요인적재량을 제공하여 합한 고유 값은 3.4로 응급구조사의 성실성 이미지에 대한 21.2% 설명력을 보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전문성 요인으로 '강한-약한', '깊은-얕은', '능동적인-수동적인', '전문적인-상식적인', '가치 있는-가치 없는'의 5쌍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 값은 2.9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이미지에 대한 18.1%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 요인은 친숙성 요인으로 '편안한-긴장되는', '낮익은-낯선', '따뜻한-차가운', '안전한-위험한'의 4쌍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 값은 2.5로 응급구조사의 친숙성 이미지에 대한 15.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성실성, 전문성, 친숙성의 3개의 요인 모두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의 전체 변량에서 54.7%를 설명하는 결과를 보였다.

각 요인의 평균은 전문성이 6.02(±0.89)로 가장 높았고, 성실성 5.89(±0.89), 친숙성은 4.51(±1.42) 순이었으며, 세 요인의 평균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 요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 요인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이미지 요인분석에서 친숙성 요인에 대해 남자가 4.76(±1.37)점으로 여자의 4.32(±1.44)점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 담당 과목에 따라서도 친숙성의 요인에서 예·체능과목 담당자가 4.75(±1.43)점으로 기타 4.18(±1.51)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49$ ).

Table 6. Mean, standard deviation and statistical difference among each factors

Image	Mean ±SD	p	Sidak
Professionalism <sup>a</sup> (5 items)	6.02 ± 0.89		
Sincerity <sup>b</sup> (7 items)	5.89 ± 0.89	.000	c < b < a
Familiarity <sup>c</sup> (4 items)	4.51 ± 1.42		
Total image	5.47 ± 0.80		

Table 7. The difference of each image factors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N=337)

Characteristics	Category	Professionalism		Sincerity		Familiarity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Tukey)
Gender	Male	6.02 ± 0.92	.986	5.90 ± 0.97	.774	4.76 ± 1.37	.005
	Female	6.02 ± 0.87		5.88 ± 0.84		4.32 ± 1.44	
Teaching subjects	Major subject <sup>a</sup>	6.03 ± 0.88		5.90 ± 0.89		4.47 ± 1.38	
	Arts and physical subject <sup>a</sup>	6.02 ± 0.86	.978	5.85 ± 0.97	.851	4.75 ± 1.43	.049 (b < a)
	Others <sup>b</sup>	6.00 ± 0.99		5.93 ± 0.77		4.18 ± 1.51	

Table 8. The difference of each image factors depending on prior contract experience to EMT\* (N=337)

Category	Category	Professionalism		Sincerity		Familiarity	
		Mean ±SD	p	Mean ±SD	p	Mean ±SD	p
Prior contact experience	Yes	6.08 ± 0.83	.181	5.92 ± 0.89	.504	4.66 ± 1.42	.020
	No	5.94 ± 0.96		5.85 ± 0.90		4.30 ± 1.40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4) 응급구조사를 접한 경험에 따른 이미지 요인의 차이

대상자의 응급구조사를 접한 경험에 따른 이미지 요인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전문성 요인에 대해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6.08(±0.83)점, 경험이 없는 경우는 5.94(±0.96)점의 결과를 보였다. 성실성 요인에 대해서는 접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5.92(±0.89)점, 경험이 없는 경우는 5.85(±0.90)점을 나타냈다. 또한 친숙성 요인에 대해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6(±1.42)점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의 4.30(±1.40)점보다 높은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20$ ).

### 5. 응급구조사(학과)로의 진로 권유

#### 1) 진로상담 시 소개 여부

중등교사의 응급구조사(학과)로의 진로상담 시 소개 여부는 <Table 9>와 같다.

중등교사의 72.7%(245명)가 학생들의 진로상담 시 응급구조사를 ‘소개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21.4%(72명)는 ‘생각해 볼 것이다’, 5.9%(20명)는 ‘소개 안 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 2) 진로상담 시 소개 여부에 따른 이미지 요인의 차이

진로상담 시 소개 여부에 따른 이미지 요인의 차이는 <Table 10>과 같다.

성실성 요인에 대해서, 학생들의 진로상담 시 응급구조사를 ‘소개할 것이다’라는 대상자는 6.01(±0.87)점으로 ‘소개 안 할 것이다’라는 대상자의 5.28(±0.98)점보다 높은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 ).

친숙성 요인에 대해 학생들의 진로상담 시 응급구조사를 ‘소개할 것이다’라는 대상은 4.66(±1.42)점으로 ‘생각해 볼 것이다’라는 대상의 4.11(±1.33)점보다 높은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4$ ).

전문성 이미지 요인에 대해서는 진로 소개 여부에 따른 유의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9. The willingness to introduce the student of EMT<sup>\*</sup> during a career counselling (N=337)

		n (%)	
Willingness to introduce of EMT	Will introduce	245	(72.7)
	Will consider	72	(21.4)
	Will not introduce	20	(5.9)

Table 10. The different of each image factors depending on willingness to introduce EMT<sup>\*</sup> (N=337)

Category		Professionalism	p	Sincerity	p	Familiarity	p
		Mean ±SD		Mean ±SD		Mean ±SD	
Willingness to introduce of EMT	Will introduce <sup>a</sup>	6.05 ± 0.93	.587	6.01 ± 0.87	.000 (c < a)	4.66 ± 1.42	.004 (b < a)
	Will consider <sup>b</sup>	5.93 ± 0.79		5.65 ± 0.83		4.11 ± 1.33	
	Will not introduce <sup>c</sup>	5.97 ± 0.65		5.28 ± 0.98		4.05 ± 1.47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IV. 고 찰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에 의한 여가활동의 증대로 다양한 사건 및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응급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13년 한국 고용 직업분류(KECO)에 근거한 한국직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의료 및 보건 관련직의 유망직종이며 앞으로의 고용 전망 및 종사자 수가 증가 할 것으로 보고되어[10]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2012년 호주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급구조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으로 8년 동안 1위를 차지하였으며[11], 외국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인식 속에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이 1995년부터 시작되어 근 20여년이 되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중등교사 중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대상자는 57.6%(194명)이었으며, 이들 중 79.5%(120명)가 TV, 인터넷,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다고 답하였다. 대중들에게 직업정보 전달에 대한 호감도면에서 영상매체를 통한 직업정보 전달이 인쇄매체의 직업정보 전달에 비교하여 높은 친밀도를 나타내고, 그 중 TV의 경우 어떤 사회기관보다 영향력이 큰 매체이며, 직업 이미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12]. 따라서 중등교사들은 최근 소방의 119 및 응급처치에 대한 TV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응급구조사에 대한 간접경험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등교사 중 예·체능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

중에는 다른 과목 담당자들에 비해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경험 있는 교사가 많은 것(71.3%, 101명 중 72명)으로 나타났다( $p=.002$ ). 이는 예·체능 교과목 중에서도 체육교사가 많았고, 체육교사의 경우 운동 중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체육교육학과의 교과과정 중에도 응급처치와 관련된 과목 수강 및 응급처치강사 등의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13], 일반교과의 교사들에 비해 응급구조사를 많이 접해 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응급구조학과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중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응급구조사와의 직접적인 경험인 임상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중등교사 전체가 응급구조사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이미지 형용사는 ‘실제적인-이론적인’ 항목으로 7점 만점에 6.33( $\pm 1.12$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 형용사인 ‘실제적인’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며, 실제적인은 사실과 이론적인 것을 서로 결합해야 함을 이르는 말로 중등교사가 생각하는 응급구조사의 직업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체 이미지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5.68( $\pm 0.73$ )점으로, 중등교사는 응급구조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에 가까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이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조사의 직업의식에 대한 이미지[14]에서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에서 각각 5점 만점에 3.77점과 3.61점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의 결과와 같았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병원 내 응급구조사 이미지[3]의 연구에서도 5점 만점에 3.25점의 평균을 보였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4] 또한 5점 만점에

3.27점으로 응급구조사에 대한 높은 정도의 이미지가 인식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응급구조사를 경험해 본 경우는 대상자 전체의 이미지 평균 보다 약간 유의하게 높은 5.74(±0.73)점의 결과를 보였고,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긍정적 형용사는 ‘전문적인-상식적인(6.36±0.87)’으로, 응급구조사를 접한 후 ‘전문적’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응급구조사에 대해 접해 본 적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형용사는 ‘낮익은-낮선(3.78±1.87)’으로 ‘낮선’쪽으로 약간 기운 이미지를 보였다. 이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응급구조사를 낯선 직업으로 생각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응급구조사의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의 모습을 가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요인은 전문성 요인으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조사 이미지 연구에서도 전문성이 5점 만점으로 각각 4.40점과 4.05점을 보여[14], 이미 선행되어진 이미지 연구들과 유사한 이미지가 강조되어졌으며, 해당계열뿐만 아니라 타 직종 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 직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전문성 이미지 항목에 대한 결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하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연구[4]에서 전문성은 5점 만점에 3.46점을 나타내었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119 구급대원에 대한 이미지 연구[15]에서 사회적, 업무적, 직업적, 개인적 이미지 중 업무적인 이미지가 4점 만점에 3.17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응급구조사의 업무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이 대표되어짐을 알 수 있다.

친숙성 요인의 차이는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p=.020$ ) 친숙한 이미지 구축에 있어서도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의 현장 처치 및 이송, 병원 내 근무 뿐만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및 대민활동을 통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홍보의 부족으로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친숙성의 요인은 성실성과 전문성 이미지 요인의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 친숙성 요인에 묶인 형용사를 바탕으로, 편안하며 낮익고 안전함으로부터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업무인식 조사결과[3], 업무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 중 가장 높은 결과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3.85점)’의 문항과 ‘항상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3.55점)’, ‘타 부서보다 감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3.35점)’ 문항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중등교사 또한 이와 같은 인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조사의 직업 이미지에 대한 주관성 분석의 결과[5], 특수전문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입장도 유사함을 보여준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한 상황 및 현장 최전방의 위치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물리적인 위험 및 감염의 노출 경우가 많아 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응급구조사의 안전한 업무방향의 개선과 감염방지가 강조됨을 나타낸다. 또한 각자 개인의 전문인다운 면모와 성실성, 그리고 다각적 차원의 활발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이 응급구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행해져야 하겠다.

중등교사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진로상담을 통한 학생들의 학과선택과 입학 후 전공에 대한 적응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고교입시의 다양화와 입학사정관제 등의 활성화로

인해 진로를 고민하는 학년 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모든 중등교사들이 학생진로에 적절한 지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만족스러운 진로상담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흥미, 적성과 같은 내적인 선택요인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며[6], 진학한 후에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의 성숙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응급구조학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전공을 선택하며, 향후 응급의료 최초반응자인 응급구조사로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등교사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진로 및 진학지도 프로그램에 대해 응급구조사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를 위한 다각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의료체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가 중등교사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응급구조사의 이미지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중등교사는 57.6%이었으며,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미지는 5.68점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 이었다. 이미지 요인분석 결과 명명한 성실성, 전문성, 친숙성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고 세 요인이 전체의 54.7%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미지는 전문성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사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모든 요인에서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등교사들에게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와 전문적 서비스를 통해 중등교사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경험

과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중등학생의 진로지도 시 응급구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높여야 하겠다.

## References

1. Ministry of Legislatio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vailable at: <http://www.law.go.kr>, 2014.
2. Institute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ployment status. Available at: <http://www.emt.or.kr>, 2014.
3. Yun JG, Chung Y, Park MY. Analysis on image and job perception of EMTs among nurses.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2004;9(2):41-57.
4. Han SY, Bae KS, Kim JU. Images of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ceived by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2;12(4):373-9.
5. Yi IS, Oh JH. A study on the job image of EMTs.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008;(16):149-60.
6. Au YG, Kim DI, Chung YJ, Lee JY.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est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1;17(3):267-91.
7. Osgood CE, Suci GJ, Tannenbaum PH. *The measurement of meaning*. 9th ed. Illinois: Bibliography, 1957. 336-42.
8. Son NH, Kim EJ. The image of the Koreans toward counselor.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07;8(2):483-92.

9. Kang CH, Choi MM. A comparative study of the public's image on helping professions: Comparison between social welfare professional and other professional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7;59(1): 171-97.
10.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3 Job prospects Korea. Available at: <http://www.keis.or.kr>, 2014.
11. Reader's Digest. Australia's most trusted professions 2012. Available at: <http://www.readersdigest.com>, 2014.
12. Kim BS, Chae HW. Influence of vocational Information via image media and realistic printed media on expansion of teenagers information and familiarity regarding voc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007;20(2):165-80.
13. Yoon WK, Lee OJ, Kim MY. Evaluation of the knowledge on the first aid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J Sports Sci* 2011;20(6):1355-62.
14. Yun SW. The image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ceived by for health department and non-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al Science* 2012;5(1): 24-9.
15. Uhm DC, Kim JW. 119 rescuers' image of citize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13(5): 2259-66.